



올스타전에 뜬 블랙이글스 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시작 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후반기 17일 4연전으로 시작...순위 경쟁 재점화

**개막전과 동일 대진으로 맞대결
2위서 8위까지 5.5경기 차 혈투 예고
벤치 싸움·불펜 활용 등 수싸움 치열
홈 경기 하루 더 늘어 관중 흥행 기대**

전반기 뜨거운 순위 경쟁을 벌이다가 올스타 휴식기를 맞이한 KBO리그가 후반기는 4연전으로 시작한다.

올해 올스타 휴식기가 기존 4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서, 후반기는 17일부터 20일까지 개막 2연전과 동일한 대진으로 4연전을 벌인다.

이에 따라 한화 이글스-kt wiz(수원), 롯데 자이언츠-LG 트윈스(잠실), NC 다이노

스-KIA 타이거즈(광주), 두산 베어스-SSG 랜더스(인천), 키움 히어로즈-삼성 라이온즈(대구) 경기로 후반기의 문을 연다.

3연전 중심의 기존 일정과 달리 4연전은 이례적인 편성인 만큼, 경기력뿐만 아니라 구단 마케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4연전은 선발진이 얇은 팀에게 불리한 구조다. 특히 4연전 초반에 선발 투수가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가 불펜을 가동하는 팀이 나온다면, 그 부담은 시리즈 막판으로 갈수록 커진다.

또한 나흘 내내 같은 팀과 연달아 맞붙기 때문에 벤치 싸움과 불펜 활용에서 섬세한 운용이 필요하다. 승부처마다 같은 불펜 투수가 등장한다면, 그만큼 타자에게 공략당

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는 4연전 시리즈가 흔하게 열린다.

불펜을 쉽게 소모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거나, 보통 4연전을 앞두고 벤치에서는 길게 던질 불펜 롱 릴리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로스터를 유연하게 활용한다.

또한 4경기 연속 같은 상대를 만나다 보니 타자와 투수의 패턴이 노출되는 걸 피하고자 타순이나 불펜 가동 순서를 경기마다 바꾼다.

KBO리그에서 흔히 쓰는 '위닝 시리즈'(3연전 가운데 최소 2승) 기준은 4연전 기간 '최소 3승'으로 바뀐다.

2위 LG 트윈스부터 5위 kt wiz까지 3경기

차, 5위 kt와 8위 삼성 라이온즈가 2.5경기 차로 다닥다닥 붙어서 가는 가운데, 4연전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는 팀은 후반기 순위 싸움에서 그만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4연전이 벤치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마케팅 측면에서는 기회가 된다. 평소보다 홈 경기가 하루 더 많아지는 점에서 구단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할 수 있다. 또한 7월 중후반은 여름 휴가철과 겹쳐 평일에도 평소보다 많은 관중 입장을 기대할 만하다.

한 시즌 성패가 좌우될 후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4연전이 콘텐츠 다양성과 팬 경험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클레이 여왕’ 시비옹테크, ‘잔디 코트’도 점령

**웬블던 테니스 여자 단식 생애 첫 정상
114년 만에 6-0, 6-0 ‘더블 베이글’
현역 선수 유일 ‘코트 메이저’ 석권**

이가 시비옹테크(4위·폴란드)가 생애 처음으로 잔디 코트에서 열린 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시비옹테크는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웬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5350만 파운드·약 997억원) 13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여맨다 아니시모바(12위·미국)에게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2-0(6-0, 6-0)으로 완승했다.

웬블던 여자 단식 결승에서 상대에게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이긴 것은 1911년 도로시 체임버스(영국)가 도라 부스비(영국)를 꺾고 우승한 이후 올해 시비옹테크가 무려 114년 만이다.

테니스에서 상대에게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이기는 세트를 ‘베이글 세트’라고 한다. 상대 점수인 ‘0’이 베이글 모양이라고 해서 붙은 별칭으로, 우리 식으로는 ‘6 대



폴란드의 이가 시비옹테크가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웬블던 테니스대회에서 미국의 여맨다 아니시모바를 누르고 우승한 후 트로피에 키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빵’으로 이겼다고 하는 셈이다.

클레이코트인 프랑스오픈에서 네 번, US오픈에서 한 번 우승한 경력이 있는 시비옹테크는 웬블던에서 개인 통산 6번째 메이저 단식 우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다.

시비옹테크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에서 이 대회 전까지 22번 우승했는데 하드코트에서 12번, 클레이코트에서 10번 정상에 올랐다.

잔디코트에서는 우승은커녕 결승에도 진출한 적이 없었다가 지난해 말 독일에서 열린 바트 훔부르크오픈에서 준우승하며 어느 정도 잔디코트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 우승으로 시비옹테크는 통산 8번째로 하드·클레이·잔디 코트 메이저 대회 단식을 모두 제패한 여자 선수가 됐다. 현역 선수 중에는 유일하다.

특히 지난해 8월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이후 급격한 내림세를 보이다가 이번 웬블던 우승으로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했던 시비옹테크는 이번 우승으로 다음 주 세계 랭킹 3위로 오르게 됐다.

또 시비옹테크는 이날 승리로 메이저 대회 통산 100승(20패)을 달성했다. 2004년 세리나 윌리엄스(은퇴·미국)가 116경기 만에 메이저 100승을 달성한 이후 최소 경기 100승 기록이다.

시비옹테크는 9월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WTA 투어 코리아오픈에 출전해 국내 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 컴파운드 양궁 남자 7년 만에 월드컵 금메달

최용희·김종호·최은규 출격 佛 물리쳐

한국 컴파운드 양궁 남자 대표팀이 7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최용희, 김종호(이상 현대제철), 최은규(울산남구청)로 팀을 꾸린 한국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4차 대회 3차 대회 컴파운드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를 235-234로 물리치고 시상대 정상에 섰다.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것은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2018년 2차 대회 이후 7년 만이다.

컴파운드 대표팀은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비롯해 여자 단체전 동메달, 혼성 단체전 은메달, 여자 개인전 동메달 등 메달 4개를 수확하며 이번 대회를 마쳤다.

한승연(한국체대), 심수인(창원시청), 소채원(현대모비스)으로 팀을 꾸린 여자 대표팀은 인도네시아와의 3위 결정전에서 235-23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